2023

LG아트센터 서울
2023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3



CoMPAS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3

CoMPAS 23

CoMPAS 23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3

2023.3.8—8.5

LG SIGNATURE Hall

파리 오페라 발레 '지젤'
Paris Opera Ballet *Giselle*
3.8 Wed — 3.11 Sat
VIP 340,000 **R** 280,000 **S** 220,000
A 180,000 **B** 120,000

윈튼 마살리스 재즈 콘서트
Wynton Marsalis Jazz Concert
3.19 Sun
VIP 150,000 **R** 120,000
S 90,000 **A** 60,000

연극 '파우스트'
Faust
3.31 Fri — 4.29 Sat
R 99,000 **S** 77,000 **A** 44,000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SLAVA'S SNOWSHOW
5.10 Wed — 5.21 Sun
R 80,000 **S** 60,000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다미안 잘레 'Kites' & 샤론 에얄 'SAABA'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Damien Jalet *Kites* & Sharon Eyal *SAABA*
5.26 Fri — 5.27 Sat
R 80,000 **S** 60,000 **A** 40,000

프렐조카쥬 발레 '백조의 호수'
Ballet Preljocaj *Swan Lake*
6.22 Thu — 6.25 Sun
LG SIGNATURE 110,000 **R** 90,000
S 70,000 **A** 50,000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Kammerorchester Wien-Berlin
6.29 Thu
VIP 140,000 **R** 110,000 **S** 80,000 **A** 50,000

U+ Stage

연극 '나무 위의 군대'
Army on the Tree
6.20 Tue — 8.5 Sat
All Seats 77,000

DESIGNED BY STUDIO WERK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의 2023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3’은 다음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협찬 Sponsored by

LG LG전자 LG U+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GS건설주식회사 한화생명

LG아트센터 서울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 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2년간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마곡지구에서 ‘LG아트센터 서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확장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선보입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The LG Arts Center was built by the global group LG in 2000 to make cultural contributions to society by presenting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o the Korean audience.

After successfully running the center for 22 years, the LG Arts Center set place in its new home in the Magok area, Gangseo district, Seoul, in at 2022. With its new construction designed by a world-famous architect Tadao Ando, the LG Arts Center SEOUL reborn as an open space that offers an expanded artistic experience surrounded by a rich natural environment.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continue to be the place where performing arts can be appreciated and where creative artists and passionate audiences can meet, communicate, and visit freely.

CoMPAS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3

23

LG아트센터가 엄선한 세계 정상급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획공연 시즌 CoMPAS 23

패키지 티켓 오픈
2023.1.17(화) 2pm

개별 공연 티켓 오픈
2023.1.19(목) 2pm

* 공동기획 공연 '파우스트'와 '나무 위의 군대'는 개별 공연 티켓 오픈에서 제외되며, 추후 별도 오픈 예정입니다.

CoMPAS 23 자유 패키지

패키지 판매 기간
2023.1.17(화) 2pm – 2.28(화)

취향대로 선택하여 구매하는 나만의 패키지
누구보다 먼저 가장 좋은 자리를 구매하세요!

7편 이상 선택 시 ▸ 25% 할인
5편 이상 선택 시 ▸ 20% 할인
3편 이상 선택 시 ▸ 15% 할인

[패키지 티켓 유의사항]

- 공동기획 공연 '나무 위의 군대'는 패키지별 선착순 500매만 포함됩니다.(7편 200매/5편 150매/3편 150매)
- 패키지 구성은 공연별 동일 좌석 등급(R/S/A 석)으로만 가능합니다.
  * R석 패키지의 경우 일부 공연을 VIP/LG SIGNATURE 석으로 상향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석 패키지의 경우 '스노우쇼'는 S석으로 구성됩니다.

[패키지 티켓 예매 안내]

- 1/19(목) 1~2pm에는 개별 공연 티켓 오픈 준비 시스템 작업으로 패키지 예매가 일시 중단됩니다.
- 패키지 구매 후 바로 구성 공연의 좌석 지정을 권장합니다. 해당 좌석 등급 매진 시 좌석 지정이 불가합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터는 취소 및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동일 공연의 동일 등급으로 날짜 변경은 가능합니다.
- 특정 공연 혹은 등급별 좌석이 매진되어 패키지 구성이 불가할 경우, 해당 패키지의 판매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구매 시에는 아트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PACKAGES

CoMPAS 23 할인

조기예매 할인 2023.1.19(목) 2pm – 2.17(금)

해당 공연
CoMPAS 23 공연 8편 중 6편
* 공동기획 공연 '파우스트'와 '나무 위의 군대'는 별도 오픈 예정이며, 할인 정보는 추후 공지됩니다.

할인 내용
기간 내 10% 할인

청년 할인

해당 공연
CoMPAS 23 공연 8편 중 6편
* 공동기획 공연 '파우스트'와 '나무 위의 군대'는 별도 오픈 예정이며, 할인 정보는 추후 공지됩니다.

할인 내용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본인 대상
20% 할인, 회당 100매 한정
* VIP/LG SIGNATURE 석은 해당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

해당 공연
CoMPAS 23 공연 8편

할인 내용
장애인 1~3급 본인 외 1인까지 50% 할인
장애인 4~6급 및 국가유공자 본인만 30% 할인
* 티켓 수령 시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현장 확인, 증빙서류 미지참 또는 할인 기준 위반 시 정가 기준 차액을 현장 티켓박스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휠체어 이용자는 공연장 및 객석 구조에 따른 안내와 상담을 위해 LG아트센터 서울 티켓박스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문의 및 예매

www.lgart.com
E-mail. lgarts@lga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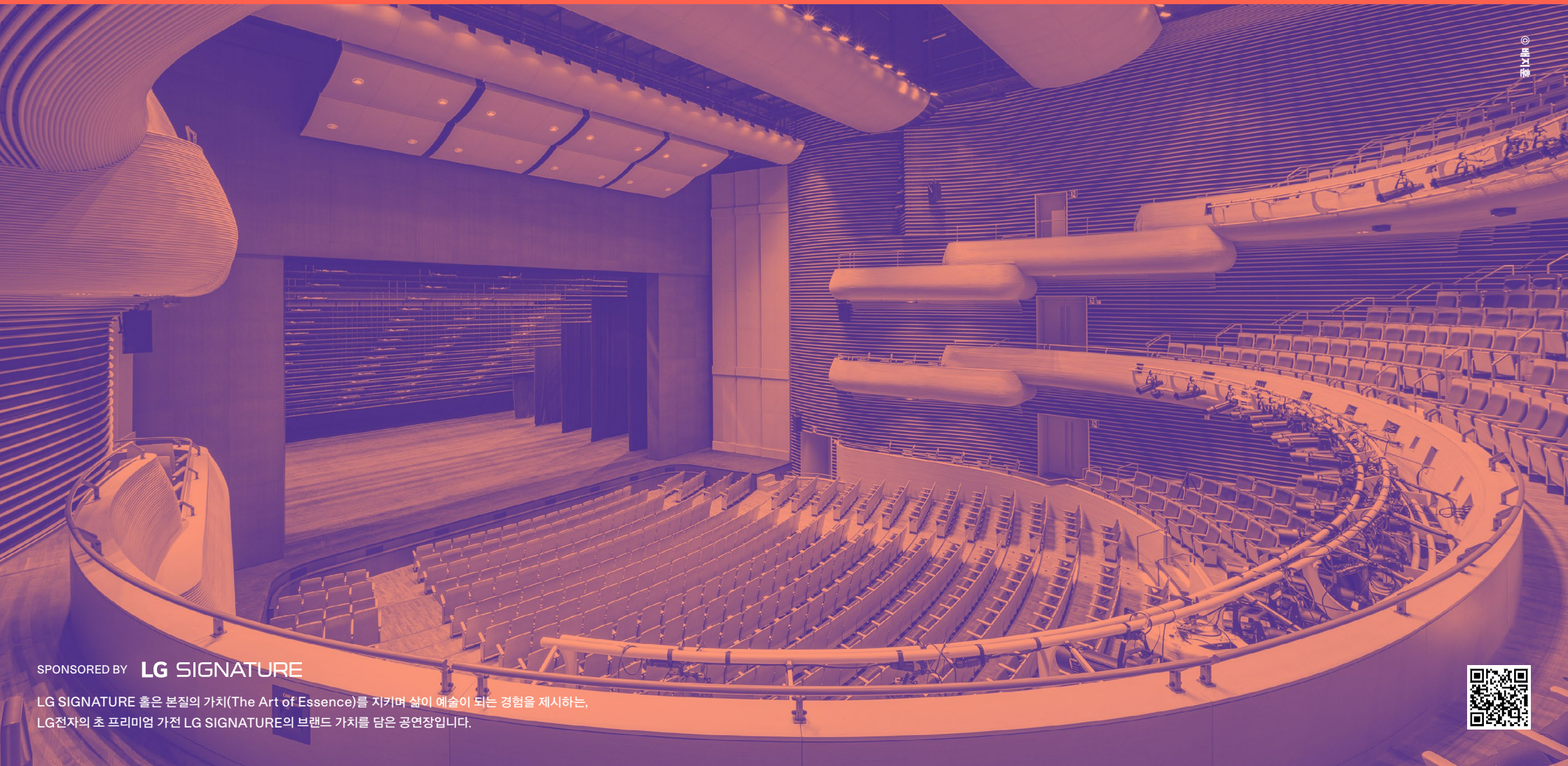
Tel. 1661-0017
(평일 10:30am – 6pm, 주말 및 공휴일 휴무)

DISCOUNT

LG SIGNATURE 홀
LG SIGNATURE Hall

LG SIGNATURE 홀은 클래식,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1,335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어떠한 공연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무대와, 장르에 맞춰 변화하는 음향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벽 안에 숨겨진 배너 커튼(VABS)을 통해 잔향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박스 인 박스(Box in Box)' 구조로 설계되어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The LG SIGNATURE Hall is a multipurpose theatre that combines the size of an opera house. It can accommodate almost all genres of performances, including operas, musicals, ballets, and concerts. The theatre boasts an acoustic environment equivalent to a professional concert hall and is equipped with high-end technologies, like the *Variable Acoustic Absorption System*, *Reflectors*, and a *Moving Tower*. With all of these theatre features, it allows to create an acoustic setting for all genres of art.



SPONSORED BY LG SIGNATURE

LG SIGNATURE 홀은 본질의 가치(The Art of Essence)를 지키며 삶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의 초 프리미엄 가전 LG SIGNATURE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공연장입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 '지젤'

Paris Opera Ballet *Giselle*

3.8 Wed - 3.11 Sat
Wed - Fri 7:30pm / Sat 2pm & 7:30pm
* 3.8 Wed 7:30pm 공연은 전관 판매되었습니다.
LG SIGNATURE Hall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AGE GUIDANCE | 8+
소요시간 | 2시간(휴식 1회 포함)
DURATION | 2hrs with one interval

VIP 340,000 **R** 280,000 **S** 220,000 **A** 180,000 **B** 120,000

30년만에 만나는 세계 톱 클래스 발레단

1841년 파리 오페라 발레가 초연한 '지젤'은 '백조의 호수'와 더불어 발레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고전 중의 고전이자, 후대 예술가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낭만발레의 대표작이다.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스토리, 슬픔을 배가시키는 백색의 우아한 의상과 무대를 장악하는 밤의 유령들의 몽환적인 춤은 새로운 미학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을 들으며 20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이자 가장 우수하고 유명한 발레단으로 손꼽히는 파리 오페라 발레의 이번 '지젤' 공연은 굳이 '지젤의 탄생지'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30년 만의 내한 공연이라는 점 만으로도 많은 발레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골 소녀 지젤은 어느 날 신분을 숨긴 채 마을에 들어온 귀족 청년 알브레히트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의 거짓말과 둘 사이의 신분의 차이를 깨닫고 충격으로 심장이 멎어 죽음을 맞게 된다. 사랑에 배신당한 유령 윌리들과 윌리들의 여왕 미르타는 지젤의 영혼을 불러내어 복수를 하려 하지만, 그녀의 진실되고 위대한 사랑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한다.

장 코랄리와 쥘 페로의 원작 안무에 기초하여 파트리체 바트와 유진 폴리아코프가 1991년 안무한 이번 작품은 원작의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지젤 초기의 성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지젤은 1막에서의 한없이 사랑스럽고 경쾌한 캐릭터와 2막의 슬픔과 절망에 휩싸여 죽음 직전에 이르는 완전히 상반되는 캐릭터를 표현해야 하는 연기력, 더불어 엄청난 테크닉을 수반하는 역할로 최고의 발레리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춤추고 싶은 꿈의 캐릭터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작품의 지젤은 현재 파리 오페라 발레 최고의 프리마돈나들이 내한하여 천상의 춤을 만끽하게 할 것이며, 왜 세계가 여전히 파리 오페라 발레에 열광하는지를 증명해줄 것이다.

파리 오페라 발레 후원

CHANEL

한국 공연 후원/협찬

CRÉDIT AGRICOLE CORPORATE & INVESTMENT BANK　YOUNGONE　CHAMPAGNE TAITTINGER


© Agathe Poupeney OnP

The Paris Opera Ballet, one of the most prestigious and oldest classical dance companies in the world, is coming back to Korea after 30 years. This time, the company will present *Giselle*, a classical ballet canon first performed by the Paris Opera Ballet in 1841.
For over 200 years, this beloved work has been seen as the pinnacle of the new romantic ballet aesthetic, with its tragic yet beautiful narrative, the ethereal white costumes that intensify the poignant imagery and the dreamlike dances of the ghosts of the night. Experience the grandeur of one of the world's most prominent ballet companies, and the birthplace of *Giselle*.

캐스트 정보

윈튼 마살리스 재즈 콘서트

Wynton Marsalis Jazz Concert

3.19 Sun 5pm
LG SIGNATURE Hall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AGE GUIDANCE | 8+

VIP 150,000 **R** 120,000 **S** 90,000 **A** 60,000

라인업 Line-up

댄 니머(Dan Nimmer, Piano), 카를로스 엔리케스(Carlos Henriquez, Bass),
오베드 칼베어(Obed Calvaire, Drums), 크리스 크렌쇼(Chris Crenshaw, Trombone),
크리스 루이스(Chris Lewis, Alto Sax), 압디아스 아르멘테로스(Abdias Armenteros, Tenor Sax),
윈튼 마살리스(Wynton Marsalis, Trumpet)

뉴올리언스 재즈의 계보를 잇는 최고의 트럼펫터

재즈의 본고장이라 일컬어지는 뉴올리언스 태생에,
재즈 명문가인 마살리스 집안 출신으로 여섯 살 때
트럼펫을 시작해 열네 살에 뉴올리언스 필하모니아
관현악단과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을 협연하며 화려하게
데뷔, 이후 줄곧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확장해온 윈튼 마살리스는 그야말로 재즈를 위해 태어나
평생을 재즈와 함께 해온 미국 재즈계의 대표 인물이다.
종종 그는 한 살 터울의 형인 색소포니스트 브랜포드
마살리스와 함께 언급되곤 하는데, 이 두 명 모두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연주자이다.
그중에서도 윈튼 마살리스는 마일즈 데이비스 이후 가장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로 손꼽힌다. 폭넓은 테크닉을
바탕으로 한 명료한 음색과 감정의 깊이가 묻어나는
독창적인 그의 연주에는 단순한 재즈 음악 그 이상의 소리,
즉 '음악을 통해 삶이 연주되는 소리'가 있다.

9번의 그래미 어워드 수상과 그래미 어워드 최초로 재즈와
클래식 레코딩 동시 수상의 기록을 가진 윈튼 마살리스는
5년 연속 수상(1983-1987)이라는 대기록의 보유자이다.
미국 뉴욕 재즈의 메카이자 재즈 교육의 산실인
재즈 앳 링컨 센터의 창립자이자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마살리스에 대한 미국 재즈계의 존경심과 영향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클래식부터, 스탠다드 재즈,
모던, 컨템포러리 레퍼토리까지 레코딩과 연주, 작곡에 있어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그이기에, 그의 공연은 매번
새롭고 흥미진진하다. 공연 때마다 매번 색다른 모습과
함께 기대 이상의 연주를 들려주는 윈튼 마살리스의
이번 LG아트센터 서울에서의 연주는 이 시대 최고 재즈
아티스트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Rob Waymen

Wynton Marsalis was born in New Orleans, considered by many to be the cradle of jazz. He began playing the trumpet at the age of six and made his debut performing Haydn's Trumpet Concerto with the New Orleans Philharmonic Orchestra when he was just fourteen. Born, it would seem, to be a jazz musician who has devoted his entire life to jazz, this world-famous jazz master will be entertaining Korean audiences once more. Marsalis is known for his versatile performances, which differ every time he plays, and his exquisite musicianship that surpasses all expectations. This concert at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mastery of one of the very best jazz artists of our time.

연극 '파우스트'

Faust

3.31 Fri – 4.29 Sat
Tue-Fri 7:30pm / Weekends 3pm
LG SIGNATURE Hall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AGE GUIDANCE | 14+

R 99,000 **S** 77,000 **A** 44,000

공동제작 LG아트센터, (주)샘컴퍼니, (주)아텍

괴테가 쓴 가장 위대한 드라마
'파우스트' 여정으로의 초대

LG아트센터는 마곡 이전 후 제작하는 첫 연극으로 괴테가 쓴 가장 위대한 드라마 '파우스트'를 선보인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20대에 집필을 시작해 80대에 완성한 운문 희곡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던 청년 괴테, 고전주의에 심취했던 중년의 괴테, 이상향을 꿈꾸던 노년의 괴테까지 대문호의 일생의 사유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영원한 진리와 욕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파우스트)과 순간의 쾌락을 주장하는 악마(메피스토펠레스) 사이의 대립과 고뇌가 지상과 천상을 넘나들며 펼쳐진다. 이번 작품의 연출은 그간 '코리올라누스', '페르 귄트' 등을 통해 세련된 미장센과 현대적 언어로 고전을 해석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선보였던 양정웅 연출이 맡는다. 연극 외에도 오페라와 영화 등 다양한 버전으로 재해석되어 상연되고 있는 '파우스트'를 양정웅 연출은 원전에 충실한 해석에 무게를 두며 욕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파우스트'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파우스트 박사에게 젊음을 되찾는 대가로 영혼의 거래를 제안하는 악마 메피스토와 지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지만 결국 악마의 꾐에 넘어가는 파우스트는 배우라면 한번쯤 도전하고 싶은 인생 배역들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연출가 양정웅과 연기파 배우들에 의해 탄생될 괴테의 대 서사시 '파우스트'. 2023년 결코 놓칠 수 없는 작품이 될 것이다.



As the first theatre production to be created after its relocation,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present *Faust*, one of Goethe's greatest literary works, which will be directed by Jung-ung YANG. *Faust* is a play Goethe started writing when he was in his 20s and finished in his 80s, just before his death. In this sense, it is a work that truly embodies the entire life of this literary giant. The plot revolves around the taut tension and the bargain made between *Faust*, a human being who seeks eternal truths, and Mephistopheles, the devil who advocates sensual pleasure. Under the direction of YANG, this story will unfold on a stage that will freely traverse the Earth and Heaven.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SLAVA'S SNOWSHOW



© Aya Rufin

5.10 Wed – 5.21 Sun
Tue-Fri 7:30pm / Sat 2pm & 6pm / Sun 2pm
* 5.19 Fri 3pm & 7:30pm
LG SIGNATURE Hall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AGE GUIDANCE | 8+
소요시간 | 1시간 40분
(휴식 1회 및 공연 종료 후 공놀이 15분 포함)
DURATION | 1hrs 40mins with one interval & the post show with giant balls in public(15mins)

R 80,000 **S** 60,000

5월에 내리는 행복의 눈보라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는 1993년 초연 이후 전 세계 100개 도시를 투어 하고, 2001년 첫 내한 이래 LG아트센터에서만 5회, 국내에서 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스테디셀러 공연이다. 막스 밀러, 찰리 채플린, 마르셀 마루소에 이어 21세기 광대 예술의 계보를 잇는다고 평가받는 슬라바 폴루닌의 대표작으로 올리비에 어워드 최우수 엔터테인먼트 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권위 있는 연극상을 수상하며 그 명성을 입증해왔다.

공연이 시작되면 관객들은 빨간색 큰 코를 가진 사랑스러운 광대가 이끄는 환상과 동화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마치 무성 영화 속 찰리 채플린을 연상시키는 광대들은 아무 대사 없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짧은 에피소드들을 펼쳐 보인다. 재치 있는 소품들, 음악과 조명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정교하게 연출되어 디지털로는 구현할 수 없는 감동의 스펙터클을 펼쳐낸다. 특히, 엔딩 장면에서 객석으로 몰아치는 거대한 눈보라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광경을 선사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날로그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스노우쇼'는 관객들에게 행복과 슬픔이 뒤섞인 커다란 감동을 건네줄 것이다.

The global mega-hit entertainment production, SLAVA'S SNOWSHOW, returns to LG Arts Center SEOUL. It is a show unlike anything else you have ever seen before; a world in which a cobweb envelops the audience and one tiny piece of paper sets off a heart-stopping snow blizzard on stage. Combining amusement and poignancy with stunning, breathtaking spectacles, this classic show offers fun and joy for families as well as theater lovers of all ages. Recommended for ages 8 and above, this is definitely the show not to miss.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다미안 잘레 ‘Kites’ & 샤론 에얄 ‘SAABA’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Damien Jalet *Kites* & Sharon Eyal *SAABA*

Artistic director Katrín Hall

5.26 Fri - 5.27 Sat
Fri 7:30pm / Sat 3pm
LG SIGNATURE Hall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AGE GUIDANCE | 8+
소요시간 | ‘Kites’ 35분 & ‘SAABA’ 45분(휴식 별도)
DURATION | *Kites* 35mins & *SAABA* 45mins and one interval

R 80,000 **S** 60,000 **A** 40,000

현대무용계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두 안무가의 작품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의 첫 내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명의 안무가 샤론 에얄과 다미안 잘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혁신적인 행보로 유럽의 선도적인 현대무용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는 스웨덴의 제2의 도시 예테보리의 오페라 하우스 상주 단체로, 20개국 38명의 무용수들로 이루어져 있어 다국적 무용수들의 개성 넘치는 에너지를 만끽할 수 있는 무용단이다.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 크리스탈 파이트, 호페쉬 웩터, 샤론 에얄, 다미안 잘레 등 현대무용계의 스타 안무가들을 게스트 안무가로 초청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그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샤론 에얄은 바체바 무용단의 무용수와 협력 안무가를 거쳐 2013년부터 무용단 L-E-V를 공동 창단한 후에도 세계 유명 무용단의 게스트 안무가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안무가로, 그의 이번 작품 ‘SAABA’는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와의 세 번째 협력 작품이다. 에얄은 매혹적이고 몽환적인 춤과 세련된 의상으로 유명하며, 이번 작품의 의상 역시 크리스챤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참여했다.

다미안 잘레는 독특한 비주얼과 혁신적인 안무,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으로, 만드는 작품마다 놀라움을 선사하는 프랑스 출신의 안무가로 현재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석과 독창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번 작품 ‘Kites’는 예상치 못한 기류의 파도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팽팽한 긴장감으로 춤추는 연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비스듬한 무대 위에서 날카롭고 정교한 움직임과 무한한 자유로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쉼 없이 움직이는 무용수들의 역동성과 긴장감을 통해 부서질 듯 섬세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현재 유럽 무용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의 안무가가 선사하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작품으로 현대무용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보자.

Sweden’s GöteborgsOperans Danskompani will present the works of Sharon Eyal and Damien Jalet, two choreographers currently standing at the acme of the European contemporary dance scene. The company will perform *SAABA*, a work choreographed by Sharon Eyal, who used to dance with the Batsheva Dance Company and co-founded her own dance company, L-E-V, in 2013, as well as *Kites*, a work created by the French choreographer Damien Jalet, who always surprises his audiences with his visually unique stages, innovative choreography, and groundbreaking collaborations with various genres.





프렐조카쥬 발레 '백조의 호수'

Ballet Preljocaj *Swan Lake*

6.22 Thu - 6.25 Sun
Thu-Fri 7:30pm / Weekend 3pm
LG SIGNATURE Hall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AGE GUIDANCE | 8+
소요시간 | 1시간 50분(휴식 없음)
DURATION | 1hrs 50mins with no interval

LG SIGNATURE 110,000 **R** 90,000 **S** 70,000 **A** 50,000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백조의 호수'

1996년작 '로미오와 줄리엣', 2008년작 '스노우 화이트' 이후, 13년 만에 앙쥘랭 프렐조카쥬가 스토리 발레로 돌아왔다. 차이콥스키의 걸작 음악을 현대적으로 편곡하고,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와 더불어 유럽에서 내려오는 백조 설화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본래 이 작품은 프렐조카쥬가 2018년 마리우스 프티바를 기념하기 위한 작품 제작을 의뢰받아 '고스트'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프티바가 '백조의 호수'를 만들었을 때 받았을 영감과 상상력에 자신을 투영하였고, 그 위에 자신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보태 또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탄생시켰다.

전 세계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고전 '백조의 호수'는 그 인기만큼 수많은 버전이 존재한다. 연극, 무용, 영화 등 '백조의 호수'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차용한 장르 또한 다양하여, 또 다른 버전의 '백조의 호수'가 나온다 해도 더 이상 놀랍거나 흥미롭지 않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갑을 훨씬 넘긴 이 거장 안무가의 도전에 프랑스 무용계는 또 한 번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법과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신화적 이야기는 현대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호수 앞에 거대한 공장을 세우려는 자본가의 욕심과 그로 인한 환경 파괴로 희생되는 백조의 이야기로 바뀌어 현대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프렐조카쥬 특유의 독창적이고 우아한 안무, 세련되고 아름다운 의상과 영상, 26명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압도적인 군무, 불멸의 차이콥스키 음악과 함께 현대적인 비트를 살려 새롭게 가미된 음악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루할 틈 없이 전개되는 작품이다.
6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백조의 호수'를 만나보자.

타이틀 스폰서

LG SIGNATURE


© Jean-Claude Carbonne

The leading figure of French modern ballet, Ballet Preljocaj returns to Korea to present his field of expertise, the story ballet. *Swan Lake* is a breathtaking spectacle, a fantastic harmony filled with Preljocaj's unique and elegant choreography, refined and beautiful costumes and video projections, an overwhelming dance featuring 26 ensemble members, and a novel interpretation of Tchaikovsky that has added modern beats to the composer's eternal classic. Experience for yourself the masterpiece in which Preljocaj puts his unimpeded creativity and imagination on full display. Faithful to the original work, Angelin Preljocaj transposes the story of the swan princess into the context of today's society, notably around environmental issues.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

Kammerorchester Wien-Berlin

6.29 Thu 7:30pm
LG SIGNATURE Hall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AGE GUIDANCE | 8+
소요시간 | 2시간(휴식 1회 포함)
DURATION | 2hrs with one interval

VIP 140,000 **R** 110,000 **S** 80,000 **A** 50,000

세계 최고의 두 오케스트라가 함께 펼치는 하모니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주요 단원들로 구성된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2008년 창단 후 처음으로 내한한다. 빈 필하모닉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 솔리스트, 수석 단원으로 구성된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30여 년간 악장으로서 빈 필하모닉을 이끌고 있는 라이너 호넥이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성사시킨 두 오케스트라의 만남은 첫 호흡 이후 서로에게 강렬한 음악적 영감을 남기며 다음, 또 그다음 음악적 교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관객과 음악 전문가들의 더욱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빈-베를린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안네 소피 무터, 요나스 카우프만, 유자 왕, 토마스 크바스토프, 유리 바슈메트, 예핌 브론프만, 앙투안 타메스티, 데니스 마추예프, 루돌프 부흐빈더, 다니엘 뮐러 쇼트, 고티에 카푸송 등 솔리스트와 함께 독보적인 음악적 해석을 선보이며 언론과 관객의 극찬을 받았으며, 창단 후 얼마 되지 않아 유럽 전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단숨에 클래식 음악계 중심으로 입지를 굳혔다. 이후 2019년에는 미국 무대에 데뷔했으며, 최근에는 안네 소피 무터와 함께 함부르크의 엘프필하모니, 빈의 무지크페라인을 비롯하여 아테네, 마드리드, 베를린 등 25개 도시에서 공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첫 내한공연에서 두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선사할 환상적인 하모니를 기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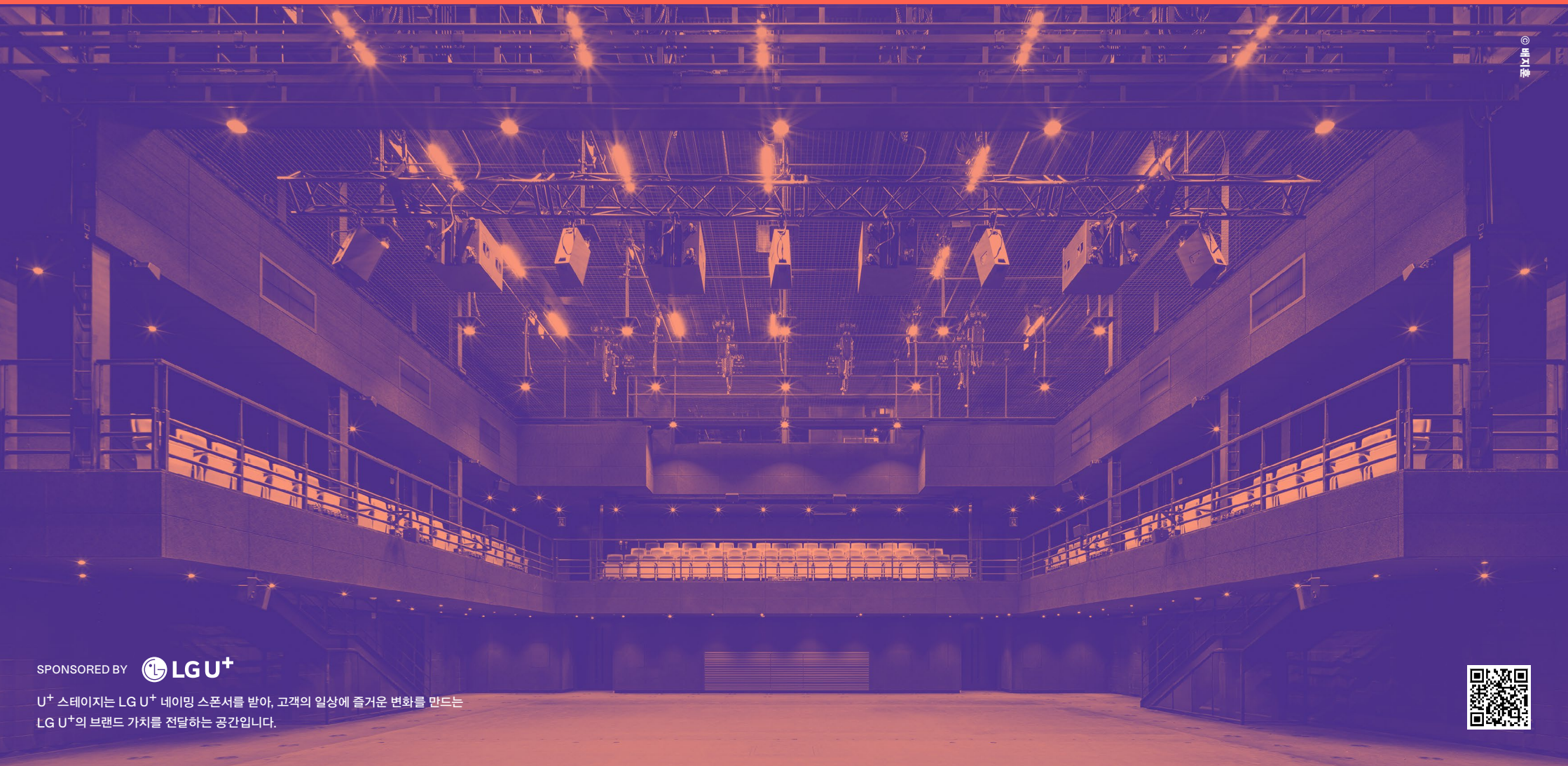

© Terry Linke

Visiting Korea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foundation in 2008, Kammerorchester Wien-Berlin is a chamber orchestra that consists of leading members of the Vienna Philharmonic and Berlin Philharmonic, two of the world's most renowned orchestras. Under the artistic direction of Rainer Honeck, who has been the concertmaster of the Vienna Philharmonic for over 30 years, this chamber orchestra includes concertmasters, soloists, and section leaders of both orchestras. Experience the astounding musicianship of a group that has quickly established its prominent status at the center of the classical music world.

U+ 스테이지
U+ Stage

U+ 스테이지는 아티스트의 의도에 따라 무대와 객석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무대와 객석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17개의 이동식 객석 유닛으로 구성된 '시팅 웨건', 60개의 스피커를 통해 완성되는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 천장에 설치된 격자무늬 와이어 그물 '텐션 와이어 그리드'는 아티스트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The U+ Stage is a black box theatre that can be set up in any form for any given performance which allows artists to freely express themselves with their imagination. The theatre's *Seating Wagon* consists of 17 movable seating units, which can be assembled in many different ways to create various stages and auditorium layouts. Technologies like the *Tensioned Wire Grid* and the *Immersive Sound System* have been implemented to provide the optimal performance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stage format.



© 배지훈

SPONSORED BY LG U+

U+ 스테이지는 LG U+ 네이밍 스폰서를 받아, 고객의 일상에 즐거운 변화를 만드는 LG U+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연극 '나무 위의 군대'

Army on the Tree

6.20 Tue – 8.5 Sat
Tue-Fri 7:30pm / Sat 3pm & 7pm
* 일,월 공연 없음 / No performance on Sun & Mon
U+ Stage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AGE GUIDANCE | 14+

All Seats 77,000

오리지널 기획 이노우에 마야(고마츠좌)
공동제작 LG아트센터, ㈜엠피앤컴퍼니
주관 달 컴퍼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과 인간에 대한 진중한 물음

전쟁이 한창이던 1945년 일본의 어느 섬, 적군을 피해 거대한 나무 위로 올라간 두 명의 병사가 있다. 땅을 향해 뻗어 내려간 기괴한 뿌리에 집채만 한 몸집을 한 나무 위에서 두 병사는 낮에는 적군의 야영지를 감시하고 밤에는 식량을 구하러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생활을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른 채 2년 동안이나 이어간다. 상관은 적군의 식량을 먹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음식도 거부한 채 오직 국가와 대의를 외치며 언젠가 본토에서 지원군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섬에서 나고 자란 신병은 그저 자신이 살아온 섬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살기 위해 선택한 나무 위에서 두 명의 병사는 더한 극한 상태에 몰리게 되고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과 대치하며 전쟁의 무익함을 마주하게 된다. 오키나와 전쟁 당시 남쪽의 작은 섬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 이노우에 히사시의 '전후 생명의 3부작' 중 미완이었던 원안을 일본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 호라이 류타가 이어받아 각본을 썼다.

한때 평화로웠던 섬이,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삶이 전쟁터가 되어 황폐해진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단면을 무대 위에 되살리는 이 작품은 인류의 역사에서 평화란 결코 이룰 수 없는 요원한 것인지 되물으며 동시에 그러한 바람을 담은 작품이다.

In 1945, on an island in Japan during the height of World War II, two soldiers climbed up a giant tree to escape the enemy. One of Japan's great literary masters, Inoue Hisashi, began writing a play based on this true story as part of his Post-war Trilogy, which was eventually finished by Horai Ryuta, a leading figure in the Japanese theater scene. By presenting a vivid slice of the war on stage—which continues to devastate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this day—the work questions whether peace can ever be achieved.



CREATOR's Box

LG아트센터 서울의 새로운 기획공연 브랜드, 크리에이터스 박스(CREATOR's Box)가 열립니다. 예술가, 기획자, 창작자들과의 경계 없는 협업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터스 박스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U+ 스테이지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관객 체험을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티켓 오픈: 별도 공지

* 본 공연은 CoMPAS 23과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오픈 시점 및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주최 및 단체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코끼리들이 웃는다 / 이진엽 연출 신작

이머시브 SF 판타지 휴머니즘 코미디 테크니컬 송쓰루
(아마도) 블록버스터 뮤지컬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4.15(토) - 23(일) U+ 스테이지

장소 특정 기반으로 커뮤니티 작업과 관객 참여 공연을 선보인 이진엽 연출과 그가 이끄는 '코끼리들이 웃는다'와 함께 크리에이터스 박스를 오픈합니다.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은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관객과 배우가 상호 소통하며 극을 만들어가는 이머시브형 송쓰루(Sung-Through) 공연입니다. 관객은 사전에 전달받은 노래와 안무 가이드를 따라 함께 참여해 극을 만들기도 하고, 선택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거나 듣는 관람 형태를 넘어선 이 작품은 관객들이 공연을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흥이 날 때 들썩일 수 있는 유연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가족을 위한 5월

패밀리 클래식 콘서트

**LG아트센터 서울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클래식 공연이 펼쳐집니다!
쉽게 클래식 음악에 다가갈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공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을 선물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티켓 오픈: 별도 공지

* 본 공연은 CoMPAS 23과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오픈 시점 및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주최 및 단체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이야기' 2022년 공연 사진
ⓒ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5.2(화) – 3(수) LG SIGNATURE 홀

엄마아빠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친숙한 작품부터 새로운 작품까지, 데이비드 이 지휘자와 서울시향이 대규모 오케스트라로 선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놓치지 마세요.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공연 사진 ⓒ StudioBob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5.5(금) LG SIGNATURE 홀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훔친 핑크퐁과 아기 상어가 클래식과 만나 어린이날 특별 공연으로 LG아트센터 서울에 찾아옵니다. '핑크퐁' 대표 동요 속에 숨겨져 있는 익숙한 클래식 음악들을 발견하다 보면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시간 가는줄 모르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지브리 페스티벌' 공연 사진 ⓒ 스톰프뮤직

지브리 페스티벌 5.6(토)
디즈니 페스티벌 5.7(일)

LG SIGNATURE 홀

서정적인 멜로디로 감성을 자극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OST부터 언제나 우리를 행복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디즈니의 OST까지 이틀간 연달아 만나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원곡의 멜로디는 물론 다양한 작곡가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버전으로 듣는 색다른 즐거움이 더해져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 Programs



22-23 교육 프로그램 '건축탐탐-안도 다다오의 건축 세계'



22-23 교육 프로그램 '건축학교-My Own Arts Center'

LG아트센터 서울은 현재의 관객 그리고 미래의 관객을 위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된 예술 경험을 선사합니다.

22년 10월 개관과 동시에 시작된 LG아트센터 서울의 교육 프로그램은 건축, 클래식, 무용 등 각 분야 국내 최고 문화 예술 단체들과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협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출발하였습니다.

23년 상반기부터는 LG아트센터 서울의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건축, 무용, 문학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워크숍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를 탐색하고 탐구해 보는 성인 대상 강연 시리즈 및 세계적 수준의 공연들로 구성된 기획공연 CoMPAS 연계 프로그램까지.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및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교육 프로그램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23년 교육 프로그램 오픈: 별도 공지
* 교육 프로그램은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The creative and high-quality education programs of the LG Arts Center SEOUL will offer an expanded art experience for audiences of the present as well as the future.

Launched simultaneously with its opening in October 2022, the LG Art Center SEOUL's first education programs presented a unique and distinctive collaboration with Korea's esteemed arts organizations across different genres, including architecture, classical music, and dance.

The regular education programs of LG Arts Center SEOUL will be put into full swing in early 2023. The program will center around art workshops designed for children and teenagers in fields like architecture, dance, and literature. A series of lectures will invite adult audiences to explore and dive deep into various artistic and cultural disciplines. In addition, education programs connected to CoMPAS—the LG Arts Center SEOUL's season program comprised of world-class performances—are also prepared.

Visit the LG Arts Center SEOUL to meet its upgraded education programs that will offer a rich experience for audiences of all ages.

향기 136

Fragrance 136

LG아트센터 서울의 향기 136

Inspired by TUBE

WOODY * SPICY * FLORAL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튜브(TUBE)에서 영감 받은 향기 136은
무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우디 향과
따뜻한 스파이시 향이 어우러진 136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채워보세요

136 디퓨저: 63,000원/150ml
136 룸스프레이: 57,000원/100ml
136 샤쉐(종이 방향제): 13,000원/1ea

* 향기 136이 담긴 다양한 제품을 LG아트센터 서울에 위치한 TYPE(2층),T+(1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36 디퓨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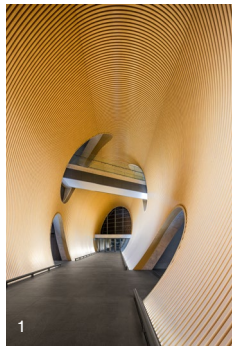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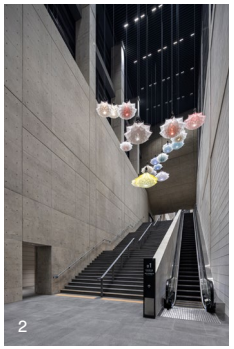
136 룸스프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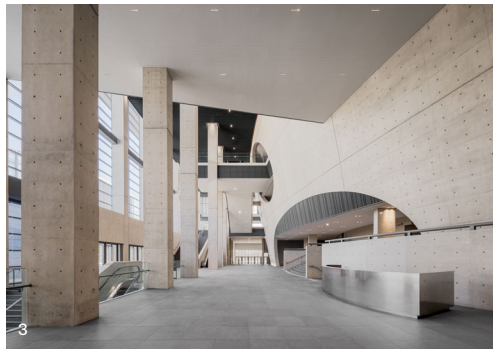
제품 사진 ⓒ studioAL

LG Arts Center × Scent Berry Perfume House

건축
Architecture


1


2


3

건축
다큐멘터리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LG아트센터 서울에는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건축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내외부에는 색을 입히지 않은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사용했고, 튜브(TUBE)[1], 스텝 아트리움(STEP ATRIUM)[2], 게이트 아크(GATE ARC)[3]라고 하는 세 가지의 건축 컨셉도 담았습니다.

2층에 위치한 '아트 라운지'에서 안도 다다오의 건축 스케치와 모형, 그리고 LG아트센터 서울의 건축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감상하실 수 있으며, 건물 곳곳에서 건축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셀프 오디오 투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The design of the LG Arts Center SEOUL fully reflects the architectural philosophy of Tadao Ando, which is to let nature blend into the architecture. The Art Lounge located on the second floor(spell out numbers that is less than 10) is an exhibition to showcase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LG Arts Center SEOUL including Tadao Ando's blueprint, initial outline, and construction model.

건축 오디오 투어
Architecture Audio Tour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하는 누구나 셀프로 감상할 수 있는 '건축 오디오 투어'를 통해 공연장 건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안도 다다오의 건축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부터 건축가의 세 가지 디자인 콘셉트, 그리고 공연장과 전시공간 및 루프탑까지. 여유롭게 거닐며 마주하게 되는 8개의 스팟에서 박해수 배우의 내레이션으로 한층 더 깊어진 공간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최/기획 LG아트센터
주관 정림건축문화재단
글 건축가 배윤경
내레이션 배우 박해수

건축
오디오 투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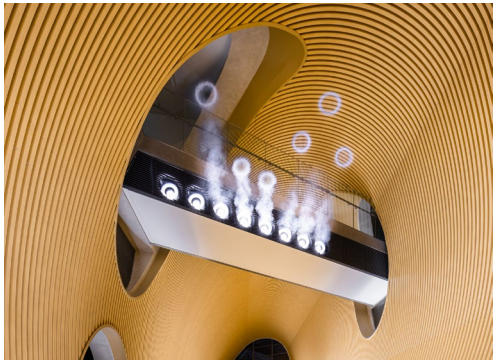
설치미술
Installation Arts



메도우(MEADOW) by 스튜디오 드리프트

마곡나루역과 직접 연결되는 스텝 아트리움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 사이 천장에 설치된 작품입니다. 스무 송이의 꽃이 리듬감 있게 피어나는 이 작품에는 LG상록재단의 화담숲에서 자라고 있는 토종 꽃 일곱 종*의 색상이 담겨 그 의미를 더합니다.

* 미선나무, 진달래, 탐라산수국, 꽃창포, 남산제비꽃, 두베부추, 섬기린초



포그 캐논(FOG CANNON: Passage) by A.A. 무라카미 (스튜디오 스와인)

튜브의 브릿지에 설치된 '포그 캐논' 은 8개의 캐논에서 도넛 모양의 포그 링을 발사하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술이 우리 삶과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LG SIGNATURE 홀 공연 전후에만 운영됩니다.



ARK 23.5 by 이이남

LG아트센터 서울의 북측 입구에 설치된 이이남 작가의 대형 미디어 작품입니다. 지구 자전축 23.5도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과 기술, 인류와 우주가 하나를 이루는 공존의 이야기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합니다.

건축 사진 © 배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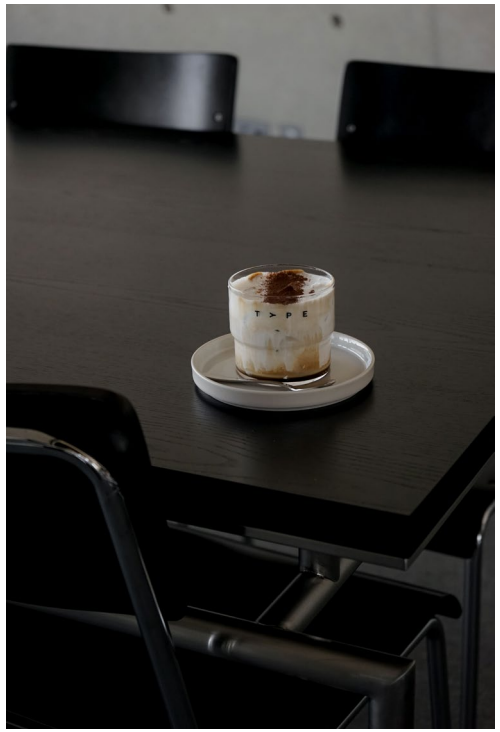
편의시설

F&B(Food and Beverage)



1층 T+ 편의점

T+(티플러스)는 TYPE(타이프)에서 셀렉한 다양한 국내외 스낵과 음료 그리고 디자인 오브제와 도서를 만나볼 수 있는 고급 편의점 겸 편집숍입니다.



2층 TYPE 카페 & 갤러리

스페셜티 커피와 갤러리가 공존하는 카페 TYPE는 새로운 향미의 커피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가이드로써, 처음 만나는 커피도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커피가 가진 매력을 색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고객에게 영감을 주고, 한 컵의 훌륭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절별 싱글 오리진과 에스프레소 기반의 다양한 커피 음료를 제공하며 커피 원두는 로스터리와 연계하여 수확기에 따라 다양하게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TYPE의 바리스타팀은 모든 커피가 가진 개성과 탁월함을 이끌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컵 퀄리티와 함께 고객서비스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Ando Tadao)가 디자인한 건축물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조각가 권오상과 협업하여 디자인한 갤러리 공간과 함께 서울 식물원을 바라보며 TYPE의 카페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3층 로마옥 이탈리안 비스트로

아치 모양의 입구와 인테리어에서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 로마옥은 이탈리아의 거리로 여행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이름처럼 독특하고 재미있는 요리를 선보입니다. 이탈리안 퀴진에 한식의 재료를 곁들여,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양식 메뉴를 선보이는 와인 비스트로이며, 대표 메뉴로는 매생이 관자 리조또, 전복 파스타, 한우 채끝 스테이크, 티라미쑥 등을 선보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와 이탈리아의 맛으로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는 물론 친구, 동료들과의 모임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공연장 옆 미술관

Space K

코오롱의 문화예술 나눔공간으로 2011년 과천에서 시작하여 2020년 9월 강서구 마곡동에 확대 개관했습니다. 국내 신진작가, 재조명이 필요한 중견작가 등을 발굴하고, 국내에 덜 알려진 해외 작가 전시를 개최하는 등 예술가에게 지속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지원과 후원을 통해 현대미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중앙8로 32)

LG아트센터 서울의 독창적인
예술 경험을 선물하세요!

기프트카드



오직 LG아트센터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의 순간을 선물하세요.

• 기프트카드는 10만원권, 50만원권 2종 중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및 사용 방법

법인회원 안내

LG아트센터 서울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법인회원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창의적 DNA를 개발시키고
조직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으세요!

법인회원권 구매방법

문의 1661-0017

INFORMATION

회원 안내

1. 예매 수수료가 없다!

•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수수료가 없습니다.

2.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편리하다!

• LG아트센터 서울 회원이 되면, PC와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 취소 및 좌석 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입비, 연회비 없고 실속은 아트포인트로!

•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에서 티켓 구매 시
일반회원 1%, 우수회원 2%가 적립됩니다.
• 기획/대관 구분 없이 공연 티켓 구매 시 적립되며
1,000원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패키지/교육/일부공연 제외)
• 적립일 기준 2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4.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소식은 뉴스레터로 빠르게!

• LG아트센터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제일 먼저 만나보세요.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면,
관람의 깊이와 감동이 커집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LG아트센터 서울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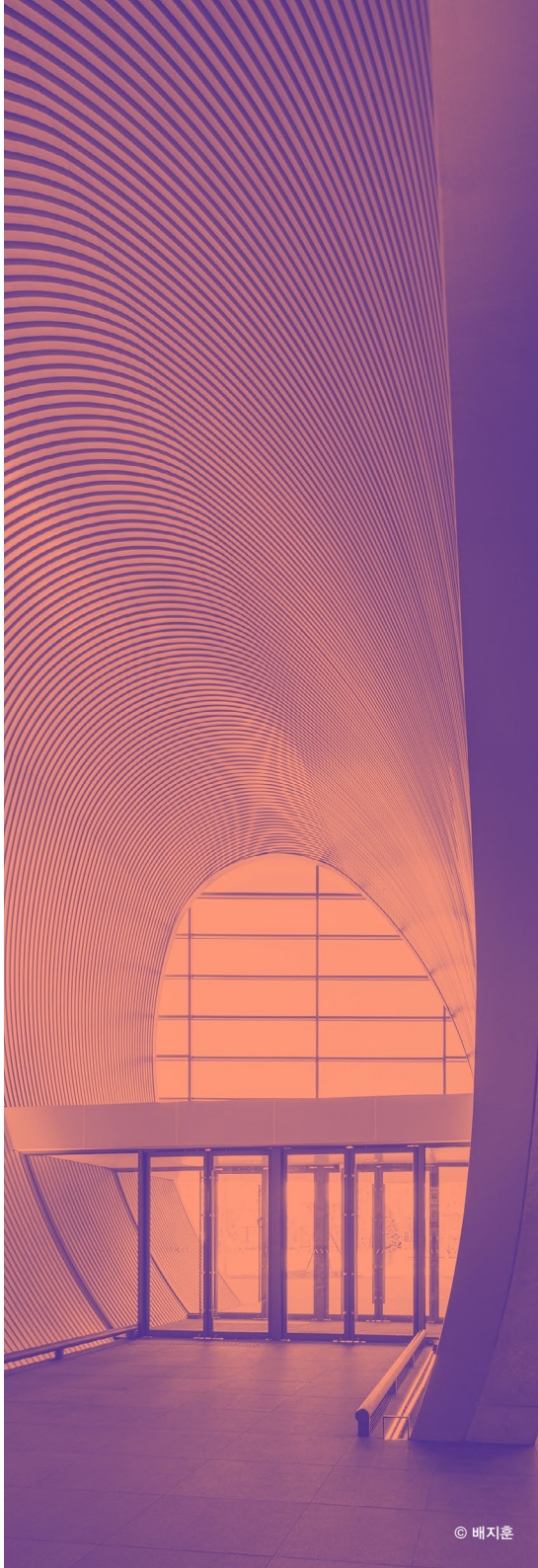
대중교통 이용안내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
3,4번 방향의 지하통로에서 로비로 바로 연결
5호선 마곡역
3번 출구에서 700M, 도보 10분 가량 소요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구글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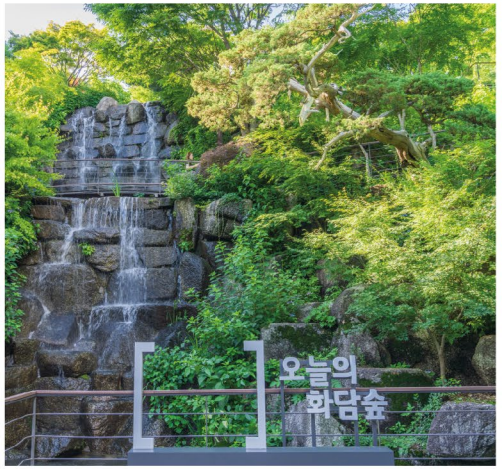
주차요금

공연관람객 4시간 3,000원(이후 10분당 1,000원)



© 배지훈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화담숲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하는 수목원으로, 2013년 6월 정식 개원하여 4,000여 종의 국내 자생 및 도입 식물을 수집, 전시하고 있습니다.

남생이, 원앙 등 멸종 위기의 동식물 복원을 통한 생태 보호와 함께 방문객에게는 휴양, 체험 등을 제공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담숲
홈페이지



VINYARD 15
Dining & Bar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15층에 새롭게 오픈한 빈야드15(VINYARD 15)의 야외 테라스 및 통창 유리는 서울식물원과 마곡 지역의 멋진 경치를 제공합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만의 특유의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와 서울식물원 뷰의 매력을 루프탑 다이닝 & 바 빈야드 15(VINYARD 15)에서 느껴보세요.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루프탑을 포함해, 단체석, 룸 그리고 연인석까지 구비되어있어 넓고 쾌적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또한 시원한 통창 유리는 공원을 담은 액자 역할을 해 특히, 오후 시간대나 해질녘 공원을 바라보면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이 떠오르는 듯한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야외 테라스와 커다란 창문을 통해 즐기는 멋진 경치와 함께 호텔 셰프가 엄선해 선보이는 150여 종의 다양한 와인, 위스키 그리고 간단한 식사 즐기며 특별한 모임과 기념일을 계획해보세요.

문의 및 예약: 02.6946.7015
운영시간: 매일 10:00 ~ 25:00
위치: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15층